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솔직, 대담한 性

통증없이 커지는 고환, '고환암'

오래전의 일이다. 당시 32세의 갓 결혼한 임승준(가명)씨는 신혼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변을 보던 임씨는 약간 커진 한쪽 고환을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통증 등의 불편함이 전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말을 들은 임씨의 부인도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라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매우 드문 악성종양

2-3개월이 흘러, 호전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자꾸만 커지는 고환이 불현듯 걱정된 부부는 늦게나마 병원에 내원했다. 임신 3개월의 부인과 함께 내원한 임씨의 병명은 놀랍게도 '고환암'이었다. 진찰 당시 한쪽 고환은 야구공만큼 커져 있었고, 임씨는 한쪽 고환을 절제하는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대개 30세 정도에서 발현되는 고환암은 통증없이 커지는 고환을 특징으로 한 매우 드문 악성종양이다. 실제로는 조직학적으로 여러 종류의 고환종양이 있고, 소아나 노인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발생하는 고환종양과는 달리,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는 여러 형태의 질환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출생 시 남아에서 음낭이 커져 흔히 '태산불알'이라 불리는 '음낭수종'이 그것이다. 태생기때 복강과 연결된 통로가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아 복강의 물이 음낭으로 내려와 생기는 것으로, 소아에서 탈장과 비슷하게 비교적 흔하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음낭수종은 고환자체가 커진 것이 아니고, 고환주위의 음낭에 물이 찬 것으로, 고환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며 고환암처럼 통증도 없다.

반대로 통증을 동반하며 고환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에서 심한 통증과 함께 고환이 커지면 '고환염전'을 강력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응급질환으로, 방치하면 고환이 기능을 잃고 차후 불임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수술이 절대적이다. 마치 시계추의 줄처럼 생긴 고환의 정색이 한두 바퀴 꼬여 그 안의 혈관이 막히고 결국 고환에 혈류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한다. 염전 발생 후 24시간 넘게 방치하면 피가 안 통한 고환이 괴사에 빠져 위축되므로, 꼬인 정색을 원 상태로 풀어주는 응급수술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

성인에서 통증을 동반한 고환의 종물은 대개 '부고환염'이다. 고환위에 붙어있는 삿갓모양의 부고환에 염증이 생긴 경우로, 성적인 접촉 혹은 대장균 등에 의해 발생한다. 항생제주사나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고환 혹은 음낭이 커지는 질환들이 여러 연령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발생 시 통증의 유무가 질환의 감별에 유용하다. 의심될 경우,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 명심하라

30대의 젊은 나이에 너무도 큰 짐을 지고 투병하다 결국 유명을 달리한 임씨의 안타까운 운명은 당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조기발견, 조기치료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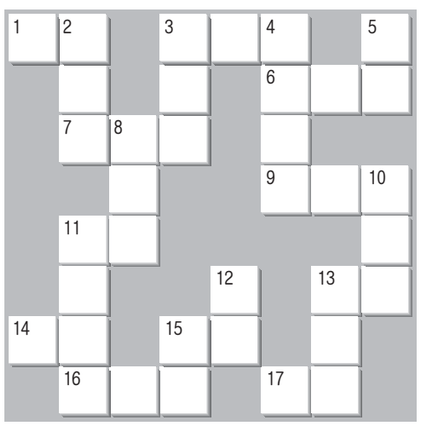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 245 >

➔ 가로풀이

1.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그 일은 이쯤에서 서로 ~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나무로 가구,창틀 등의 물건을 만드는 곳. 6.파리가 수도인 나라. 7.터키 등 이슬람 국가에서 전래된 것으로 밀폐된 방에 열기를 가득 채워 땀을 내고 몸을 씻는 시설을 갖춘 곳. 9.일을 즐겁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 11.몸이 약한 사람. 그는 겉보기에 ~로 보여도 일을 할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강골. 13.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계수. 14.대학 등에서 강의를 신청하지 않고 몰래 강의를 듣는 일. 15.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 갈라진 사람의 집단. ~ 싸움. ~을 만들다. 16.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을 가진 미개 종족. 17.모임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 사은회를 열기 위해 학생들에게 ~를 걷었다.

➔ 세로풀이

2.심장부에 갑자기 일어나는 심한 동통(疼痛)이나 발작 증상. 심장벽 혈관의 경화,경련,협착(狹窄),폐색 등으로 인해 심장 근육에 흘러드는 혈액이 줄어들어 일어난다. 3.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곳. 4.여성이나 어린이의 가장 높은 음역(音域). 또는 그 음역의 가수. 5.신문과 방송을 통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새로운 소식.(외래어) 9시 ~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일기도에서,여러 개의 등압선이 모여 골짜기를 이룬 기압이 낮은 부분. 주말에는 ~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10.뜻밖에 얻는 좋은 운수. 시험에서 ~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1.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 12.입고 있는 옷 이외에 여유가 있는 남은 옷. 또는 본래 소용되는 것 이외의 것. 산은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질 테니까 ~로 긴팔 옷을 준비해 오세요. 13.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에 드는 비용. 막대한 ~가 든 초대형 영화. 15.논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 너른 밭을 단 한 고랑도 남기지 않고 모두 ~을 해 거둬들인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함께 풀어봅시다 244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김정순·광주시 북구 용봉동

김성수·광주시 서구 치평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뉴스퀴즈

58.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 발원한 이 현상으로 1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① 황사 ② 온난화 ③ 엘니뇨 ④ 라니냐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음 2월 15일 丙寅)

子 36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48년생 정리를 잘하면 득은 저절로 생긴다. 60년생 모든 일이 난조로다 신중하게 내실을 기하라. 72년생 시기가 빠르니 자기 사람으로 주변을 구축하라. 84년생 우연한 기회가 좋은 일로 연결되니 철저하게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丑 37년생 주변의 물건을 조심하라. 49년생 제사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니 분수를 지켜라. 73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실리를 추구하라. 85년생 만족한 결과가 있으니 설계를 다시 하면 신사가 새롭다. 행운의 숫자 : 07, 40

寅 38년생 적기의 마무리는 큰 재를 얻는다. 끝을 조심하라. 50년생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62년생 의욕을 앞서나 완급을 조절해야 하리로다. 74년생 새로운 인연은 좋은 결과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1, 25

卯 39년생 호사다마 좋은 날이지만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51년생 좋은 소식은 들려오나 서둘지는 말아라. 63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행하며 진행하라. 75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 행운의 숫자 : 11, 34

辰 40년생 새로운 곳에 온 형상이나 재미는 있다. 52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64년생 시기는 빠르나 숨통은 터졌다. 76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협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30

巳 41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3년생 부친의 건강도 살펴보고 인사를 올려라. 65년생 시기상조니 준비를 잘하라. 77년생 득도 있고 실도 있으며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08, 37

午 42년생 길사가 적으니 조심하여 추진하라. 54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나 결과는 좋을 수다. 66년생 승부수를 띄워보라 결과는 이기는 쪽이다. 78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라 허술함이 보이니 보완하고 넘으라. 행운의 숫자 : 05, 26

未 43년생 대고는 없다. 55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67년생 속으로는 통한 듯 하지만 오해의 불씨가 움틀 수 있다. 79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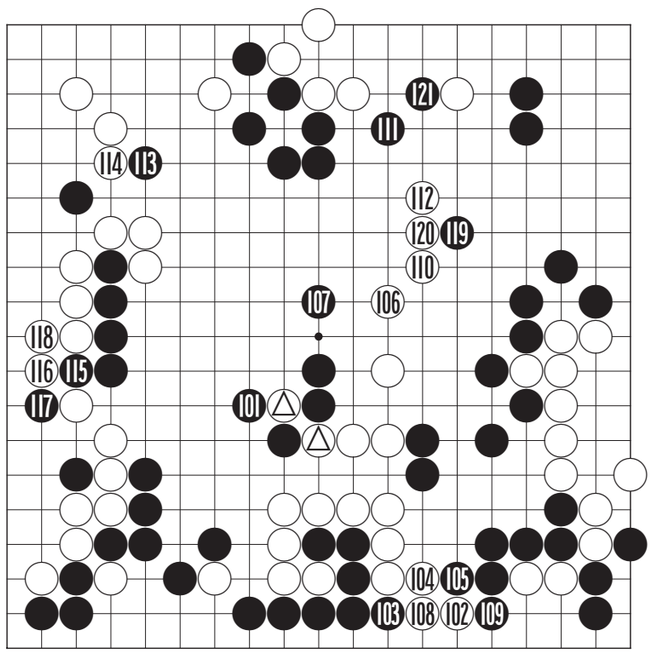
申 44년생 큰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망할 수도 있다. 56년생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실속 있는 사업도 되는 일이 없으리라. 68년생 옛 인연을 지속하라 도움이 있을 수다. 80년생 새 맛으로 잠깐의 즐거움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2

酉 45년생 새로운 일 있을 수 있다. 57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69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지속된다. 81년생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 가능성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38

戌 46년생 될 것 같은 일은 있으나 성사는 어렵다 신중하게 처신하라. 58년생 계획했던 좋은 일 이루어지리라. 70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나 침착하면 정리된다. 82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니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7, 29

亥 47년생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 베풀면 돌아온다. 59년생 모든 외형을 줄이고 실리로 바꿔라. 71년생 친구 간의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3년생 독신은 밖으로 나가라 즐거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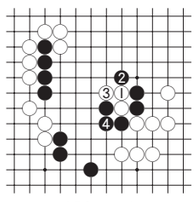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1기 SK가스배 프로10걸전

괴로운 행군 8보(101~121)

白 이재웅 5단 黑 김수용 초단



〈참고도〉

백 Ⓐ는 난국 타개를 위한 응수타진이었으나 흑이 과감하게 101로 몰아오자 별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이 한점은 축이 되지 않음으로 '참고도'의 백 1로 달아날 수는 있다. 그러나 흑 2로 몰고나서 4로 이으면 백 석점이 커져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결국 계륵에 불과하다.

이재웅 5단은 쓴 맛을 다지며 백 102를 선수하고 106으로 괴로운 행군을 시작했다. 전보에서 김수용 초단의 판단착오로 대마에 숨통은 트였으나 흑 세력이 두터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이 대마가 살기만 하면 실리가 많다는 점이다.

흑이 슥 107로 평범하게 뛰는데도 백은 숨이 막혀 온다. 흑 111에 그곳을 받지 못하고 112로 중앙 대마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도 괴롭다. 신바람이 난 김수용 초단 113부터 119까지 선수활용을 하고 나서 드디어 121로 공격의 칼날을 들이대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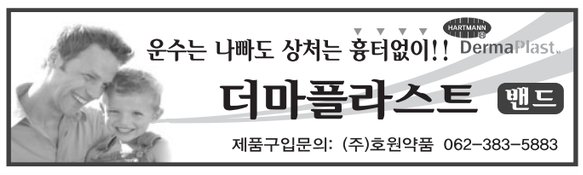
日 조치훈, 십단전 우승 1승 남겨

조치훈 9단이 최근 일본 아이치 현에서 열린 제45기 일본 십단전 도전 5번기 2국에서 야마시타 게이고 9단을 306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꺾고 타이틀 방어에 1승만을 남겼다.

조치훈 9단은 2국 종반까지 백의 두터움에 고전했으나 야마시타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역전승을 거뒀다.

'초읽기의 마술사'로 불리는 조치훈 9단은 이날 대국에서도 어김없이 초반 50수에 초읽기에 들어간 뒤 침착함을 잃지 않는 노련함으로 승리를 일궈냈다. 일본 서열 4위 기전인 십단전의 우승상금은 1억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73>

Let's face it

현실을 직시합시다

A:Our company started out making light bulbs.
B:Yes, we all know that's true.
A:So we should continue making them like our founder wants.
B:But, **let's face it.** They're our least important product now.

A:전구를 생산한 것은 우리 회사가 처음이라구요.
B:그래요,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죠.
A:그러니까 창업자의 희망대로 전구 만드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B:그러나, **현실을 직시합시다.** 전구는 중요성이 가장 떨어진 제품입니다.

start out : ~일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light bulbs : 전구 제품
Let's face it.
= We have to admit it.
= We have to face facts.
= Let's take the bull by the horn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73>

授業(じゅぎょう)に出(で)る?

수업 들어가니?

A:今日(きょう)は**授業(じゅぎょう)に出(で)る。**
B:うん、出(で)るつもりだけど。
A:悪(わる)いけど 席(せき)とっといてもらえる。
B:じゃ、後(うし)ろの席(せき)とっとくよ。

A:오늘은 **수업 들어가니?**
B:응, 들어갈 생각인데
A:미안한데 자리 좀 잡아놔 줄래?
B:그럼 뒤쪽자리를 잡아놓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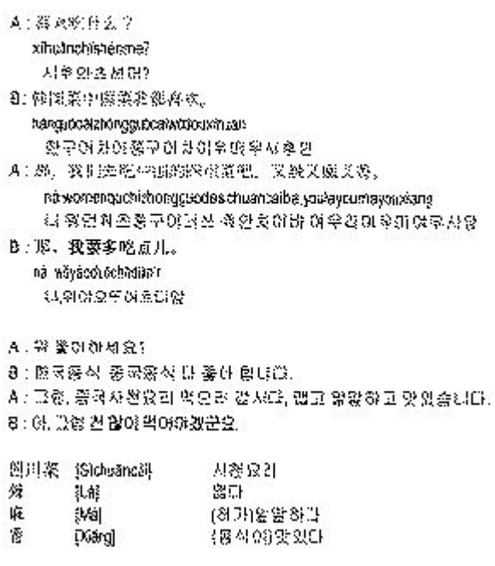
とる : 취하다, 잡다
- 자리를 잡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뭔가 잡을 때 쓸수 있는말
おく : 두다
とる+おく : とっておいて〉잡아놔줘--〉とっていて로 축약된말(회화체에서 많이사용)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63>

我要多吃点

저는 많이 먹을래요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90>

岐 路 (기 로)

갈라질 기, 길 로

기로(岐路)는 갈림길이다. 확실한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정표(里程標)에 여러 갈래의 길표시가 나오면 당황하게 된다. 목적지까지의 지도(地圖)를 미리 살펴보고, 한 길로 곧장 나가지 않으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양자(楊子)는 전국시대의 대학자였다. 그의 이웃집에 사는 노인이 곧 새끼를 낳을 어미 양을 잃어버렸다. 노인은 동네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찾아 나섰다. 양자가 왜 이리 야단법석이냐고 묻자, "갈림길(岐路)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다들 빈손으로 돌아왔다. 양자가 다시 양을 잃은 까닭을 묻자, 이번에도 "갈림길을 가면 또 갈림길이 있어서, 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多岐亡羊)"라고 대답하였다.

양자가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웃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이 남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상심하시냐고 묻자, 양자는 "단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갈림길에서 또 갈림길로 헤매어 들어가서 찾다가는 결국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물며 학문의 길은 어떻겠느냐? 아무런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다보면 양 잃은 노인의 꼴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일을 할 때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列子·說符篇)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